



우리에게
온
하나님 나라

2025년 우리의 비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



덴버드림교회 소식지
2025년도 상반기 Vol. 1



우리교회 뉴스레터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뉴스레터는 무엇보다 교우들간의 교제와 친교가 더욱 깊어지게 하는 아름다운 소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맛갈나게 소개하는 복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에는 분기별 지난 교회 사역들에 대한 짧은 기사와, 앞으로 진행될 교회 여러 행사에 대한 소개가 담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교우들의 신앙 간증과 소감, 강준민 목사님의 묵회서신을 포함하여 널리 알려진 지도자들의 글들도 전하고자 합니다.
시작이어서 미흡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호가 거듭되면서 더욱 멋진 채널로 발전되어 가리라 기대합니다. 사랑으로 읽어 봐주시고, 널리 나눠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욱
덴버드림교회 담임목사



DENVER DREAM CHURCH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 넘치며,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다음 소식으로,

1-2월 교회 소식

즐기로운 신앙생활

강준민 목사의
묵회 서신

다가올 사역 광고

기도 제목 및
교우 소식

발행일

2025년 3월 2일

편집 & 디자인
최원경



지난 일정 되돌아보기 1-2월 교회 소식

상반기 선교 세미나

C connection & 4HIM 선교 보고

지난 1월 4~5일 본 교회와 협력하는 국제커피 선교회 C-connection과 4Him 대표팀들이 방문하여 최근 선교 사역에 관한 자세한 소식을 듣는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선교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시작된 이 두 전문적 융합은 “커피와 AI”를 매개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 현지 선교사를 모집하고 훈련하고 세우는 전략적 선교를 힘있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거점으로 인도-유럽-홍콩-남아프리카로 뻗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함으로 복음 확장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남여 선교회 모임

2025년도 연초 여선교회 식사 교제와 회의를 통해 지난 한해 함께 달려온 서로를 격려하고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고민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절기 행사뿐 아니라 공동체로서 서로를 따뜻하게 돌보는 정기적 양로원 방문 사역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곁에서 작은 위로와 필요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한 몸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남여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신앙 생활

우리는 그렇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될 때 신앙 생활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언제 깊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셨나요?



이광국

“어렸을 적 어머니의 신앙 덕분에 창조주가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군 제대 후 첫 사회 생활을 시작하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니 하나님과는 더더욱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음 속 어딘가 모르게 그렇게 사는 삶이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을 할 때 좀 외삼촌의 초청으로 낯선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마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생생한 꿈을 꾸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 제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즈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게 주심으로, 가장 두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강하게 느낄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해주신 일을 세어보면 책으로 써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정화

“전 하나님께서 저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집니다. 제가 어린 시절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었고 하나님께서 절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입술로만 아니라 제 마음에 믿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 부흥회가 열렸는데 마지막 날 목사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이에게 방언을 주신다고 하셔서 전 당연히 저한테도 방언을 주실거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방언을 받는 제 친구들과 달리 저에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생각하고 너무 슬퍼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햇볕처럼 따스하고 밝은 빛으로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셨고,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하염없이 울었던 일을 추억합니다. 나의 마음 일일이 다 고하지 않아도 제가 한숨만 쉬어도 그냥 그분 앞에서 울기만 해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 집니다.”



강준민 목사의 목회 서신

자신이 늘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지혜

나이가 들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거듭 생각하게 됩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자신이 늘 옳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생각이 늘 옳을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은 과거의 배움과 경험과 만남과 성공과 실수와 실패를 통해 형성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까닭에 전지(全知)하지 않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혜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겸손한 성품 중의 하나는 지적인 겸손입니다. 지적인 겸손은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으며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은 모르는 게 없다는 뒤통수에 걸리면 큰일입니다. 그것을 지능의 덫(the Intelligence Trap)이라고 부릅니다. 때로는 정말 똑똑한 사람같이 보이는 데 어리석은 실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가 안 되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지능의 덫에 걸린 까닭입니다. 왜 우리에게 지적인 겸손이 필요할까요?

첫째, 지적 겸손을 통해 과신(過信, Overconfidence)의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신이란 자신의 지식, 능력, 판단이 실제보다 더 정확하고 완벽하다고 믿는 심리적 오류를 의미합니다. 과신이란 단어 속에는 “지나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과신의 덫에 걸려들까요? 과거의 성공 때문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과신을 낳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많은 지식을 폐기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정보와 기술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전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의 성공에 도취되어 같은 생각과 같은 방법과 같은 전략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지속적인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둘째, 지적 겸손은 지적 유연성을 낳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시대에 필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적응력입니다. 유연성은 변화에 잘 대응하는 능력입니다. 지적 유연성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와 기술과 도구를 환영합니다. 기존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더 나은 생각을 환영합니다. 지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입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는 경향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확증 편향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경직(硬直)입니다. 경직(硬直)이란 돌처럼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엇이든 경직되고 딱딱한 것은 위험합니다. 딱딱하면 부서집니다. 유연해야 부서지지 않고 흐름을 잘 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연함이란 불확실한 현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흐름을 분별하고, 그 흐름을 잘 타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변화는 생존을 위해 필수입니다. 또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때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적 겸손은 협업의 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스승을 무시합니다. 집단 지능(Collective Intelligence)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더불어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통합과 융합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반대 의견 속에서도 배움을 얻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최상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넷째, 지적 겸손은 평생 학습의 길입니다. 지혜는 평생 학습을 통해 길러집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정보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정보를 분별한 후에, 좋은 정보를 선택해서 어떻게 적용할지 아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하늘에서 임합니다. 또한 겸손한 배움과 경험의 축적의 열매입니다. 평생 학습이 지혜의 길인 까닭은 우리가 배운 지식이 영원히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과 약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지식과 정보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지식과 정보에 매달려 있으면 시대에 뒤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생 학습자로 살아가는 자세는 열린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이란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라는 태도입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우는 자세입니다. 모든 사건과 만남을 배움의 기회로 여기는 것입니다. 대화할 때도 이기려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기 위해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 대화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자세로 소통하면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적 겸손을 통해 더욱 풍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2025년 2월 24일
목양실에서 강준민 드림



3월~5월 다가올 사역 광고



평신도 리더 훈련

건강한 신앙 생활은 혼자가 아닌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서기 위한 평신도 리더 훈련이 3월 시작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격려금 수여식

덴버드립교회회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지체들과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J.D.KIM Ministry는 3월 1일 장애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지체들을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격려 수여식을 마련했습니다.

일시 3/1 (토) 오후 5시 ~ 7시

장소 덴버신학교 예배당

김진홍 목사 말씀 초청 집회

대한민국의 개신교 신학자 이시자 존경받는 목회자이신 김진홍 목사님 말씀 초청 집회가 오는 4월 초 예정되어 있습니다. 복된 시간이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시 4/4(금) ~ 4/6(주일)

주제 그리스도인의 사명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 사순절 전교인 복음서 통독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전교인이 함께 사복음서를 통독하며 영광스런 부활의 기쁨을 맞길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특새 일시

4월 15일(화)~19일(토), 오전 6시

봄 음악 콘서트

찬양 속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봄 음악 콘서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속 복음을 누리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일시 5/10(토) 오후 2시

주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교회 가족 야외 예배

일년에 한 차례 온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 안에서 예배하고, 음식을 나누며 친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즐거운 예배와 야외 활동을 기대해 주세요.

일시 5월 중순(날씨에 따라 확정)

장소 추후 공지



함께 기도하며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1. 덴버드림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복음의 살아있는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 2025년 각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3. 교우님들의 육신적 어려움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지희 권사님, 예려숙 권사님, 이강훈 집사님, 박천수 집사님, 박춘금 집사님, 이정화 집사님, Daniel 형제님, 권혁주 자매님, 정재호 어린이
4. 선교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선한 사역의 이끄심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경록, 나모세, 김재옥/노미화, 이강철/김영애, 송요준, 이진호/송효빈

✓ 최근 업데이트 된 기도 소식

- 2월 초 정진협 형제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달라스에서 새 사업장을 잘 인수하셨습니다. 축복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월 초 외과 수술 후 천천히 회복 중이신 명만재 집사님께서는 아직 목과 등 양쪽 부위에 통증이 있으시지만, 수술 전보다 호전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 이정화 집사님 수술 후 표적 항암 치료 과정에 있으신데, 최근 혈소판 수치 감소와 약의 부작용으로 체력적인 어려움을 이겨가고 계십니다.
-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소망과 위로, 감사의 열매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덴버 드림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오전 예배 오전 10시 40분 [예배 10분 전 찬양 시작]

Sunday English Bible Study 주일 오후 2시 [In person only]

새벽 기도회 화~토, 오전 6시 [In person & zoom live]

새벽 신학교 화~금, 오전 7시 45분 [In person & zoom live]

공동체 성경 읽기 PRS 수요일 오후 7시 [zoom only]

담임 목사 정성욱 부목사 정지훈 강도사 박갑윤

T. 720-237-9038 www.denverdreamchurch.org

5400 South Yosemite Street, Greenwood Village, Colorado 80111